

투데이 칼럼

해수욕·레저활동 안전하게 즐기는 요령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혼 혼한 인정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전북 도내 8개 해수욕장은 개장준비가 한창이다.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과 레저객들에게는 바다가 위험한 공간이라는 사실과 안전사고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기에 안전한 해수욕과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몇가지 당부드리려 한다. 첫째,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물놀이에 적합한 수온은 24도 내외이므로 수온이 낮을때에는 해수욕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음주후 해수욕이나 야간 해수욕은 사고의 주범이 되므로 삼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물놀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거나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현명 부인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둘째, 바다낚시를 위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방파제나 갯바위 위에서 행하는 낚시는 높은 너울성 파도나 미끄럼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셋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레저용 장비를 이용하므로 사용전 충분한 장비점검과 유사시 자기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등 민반의 준비를 해야한다.

특히, 야간 레저활동시에는 해역내 어망, 압초 등 위험요소를 주간에 확인하고, 조난시 비상연락을 위해 휴대전화나 무선통신기와 예비 배터리 및 방수팩을 준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출항지로부터 10마일 이상 원거리 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도 당부드린다. 넷째, 여객선과 유·도선 이용객들은 승선권 예매나 예약을 통해 해바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기대한다.

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안전항해를 저해하므로 절대로 초과승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섬 지역 탐방시에는 마지막 여객선이나 유·도선은 항상 불비기 마련이므로 조기 출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을 보장할 수 있다. 다섯째, 갯벌이나 바닷길을 들어갈 때에는 인터넷이나 지역 주민들을 통해 물때를 확인하여 밀물 이전에 육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멀리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갯벌의 경우 바닷물의 주동으로 갯벌에 사람이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힘들어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피서철, 바닷가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점을 명심하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서해바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장마 대비 취약 시설 점검 해야

이제 곧 장마철이다. 장마에 대비해 취약지구나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겠다. 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반드시 그 리 전부터 점검을 해야겠다. 다른 공무에 스케줄이 빽빽할 테지만 시간을 쪼개더라도 점검에 나서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이냐 말이다. 이맘때면 늘 하는 게 그렇지만 한 때의 통과와 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마철에 예상되는 것은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 재해이다.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수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나치는 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괜찮겠지 하는 정신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방심은 필연코 인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에게 장마에 대비해 취약 시설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특별히 말하는 이유가 있다. 최근에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

부와 산림청들 해당 8개 부처가 전국의 자치단체를 상대로 여름철 재난 대비 실태를 조사한 게 있다. 그런데 그게 좀 뜻밖이다. 우리 전북 지역에 대한 지역 사항이 37건이나 됐기 때문이다. 폐업하고 자연 재해를 대비한 행동 매뉴얼마저 완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지대 침수 때 주민 대피 계획이 없는 것도 그렇고 시간대별 예측 강우량 등 단체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할 자료도 없다는 게 그렇다. 전북도는 장마를 대비해 취약 시설 점검을 총괄해야 한다. 군산시와 장수군과 고창군 등 도내 시군들이 그에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낡은 집이며 오래된 축대며 산악 지대며 도로의 절개지며 교량 등 살필 것이 하나 둘이 아닐 터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시설 점검을 꼼꼼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발전 현안, 장기 표류는 곤란하다

지역 발전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상당수가 장기표류한 채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본보는 예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뒷심 발휘였다. 시일이 한참 지난 지금 돌이켜 볼 때 과연 관계자들이 지역 발전 현안에 얼마나 주목했는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뒷심 발휘가 중요하다. 최근들어 관광현이 군산항의 일감을 싸그리 뺏어갈 것처럼 위협적인 존재로 거듭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하여 투자를 약속했던 많은 기업체들도 발을 뺐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중에 대표적인게 삼성의 약속 파기이다. 현재 삼성 측은 눈치를 보는 작사람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치도 않다. 그것은 자라는 상처 받은 도민들의 자존심을 아예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수년간 아무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서 수선을 피우려고 있는데 마뜩치 않다. 그렇게 수선을 피워야 지역 발전 현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말이다. 이래가지고선 교정의 발전은 요원하다. 새만금 사업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허탕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리면서 세월을 길게 끌고 있으니 답답하다. MOU 체결을 할 때만해도 다들 기대가 컸으나 지금은 그 기대가 온데간데없다. 체결 계약서를 들고서 민원에 웃음을 지으며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은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나중에 지지부진한 채로 있다가 없었던 일로 했던 게 하나둘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적의 일인지 이제는 기억에도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발었던 사업들마저 실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하다. 해상풍력 발전소와 지원항만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초장부터 맥 빠진 모습을 보이더니 현재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가력도-비안도 간의 도선 운항 건이며,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며, 도민들이 바랐던 바는 정부의 전폭적인 승인과 함께 원활한 추진이었는데 그것은 순전히 이쪽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다. 요구를 하는 쪽과 요구를 들어주는 쪽의 생각이 항상 일치할 수가 없다지만 현안이 마냥 현안으로만 남아서 세월을 죽이고 있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독자제언

도난 예방 수칙 지켜 빈집털이 막자

최근 농촌지역은 모내기 등 농사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바쁜 농사철 일수록 빈집털이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번쯤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빈집털이를 분석해 보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모든 시간대에 골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요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몇가지 작은 습관을 통해 빈집털이 범죄를 예방하자. 첫 번째, 출입문 및 창문 등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정해야 한다.

두 번째, 집 안에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귀중품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하며, 예금통장 보관시에는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적어 놓는 등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외출시는 파출소에 반드시 보관요청 및 예약순찰제를 신청하여 범죄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칙 외에도 마을 단위에서는 마을방범용 CCTV에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취약개소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를 확충하고 기존 CCTV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한다면 올해 빈집털이로 마음 아플 일은 없을 것이다.

오형식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치안 서비스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설치

범죄는 점차 지능화, 기동화, 흉폭화 등 되어가고 최근 들어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되면서 또다시 우리 사회의 경악을 울리고 있다. 이처럼 어디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건사고를 경찰의 역량만으로 치안환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따른다. 하지만 막상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그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배사건이나 현상수배, 뺑소니사건, 난폭·보복운전, 교통법규위반, 데이터폭력, 선거사범 등 각종 사건사고의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때, 스마트 폰, 블랙박스 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공개수배정보를 제공하여 경찰과 국민이 실시간 소통하는 치안 안전 서비스 형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앱(App)을 실행중에 있다. 누구나 앱은 각 통신사 마켓에서 스토어나 구글PLAY와 애플(앱스토어)을 실행하여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검색으로 쉽게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고, 인터넷 http://onetouch.police.go.kr에 접속하여도 제보가 가능하다. 목격자의 대다수가 2차 피해를 두려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고 이렇듯 흉폭화 되어 가는 범인의 신속 검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물론 나아가 범죄로부터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중요하다. 모든 국민들이 편리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앱을 통하여 경찰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날이 한결 더 가까워지길 기대해 본다. 박경민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 경위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